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Problem of Artificial Abortion
from the Viewpoint of Peter
Singer's Bioethics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倫理教育專攻

李美卿

2011年 6月 日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倫理教育專攻

李美卿

2011年 6月 日

碩士學位論文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Problem of Artificial Abortion
from the Viewpoint of Peter
Singer's Bioethics

指導教授 尹 泳 敦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6 月 日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倫理教育專攻

李 美 卿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1 年 6 月 日

主 審_____印

副 審_____印

副 審_____印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II.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와 임신중절	5
1. 현대사회에서의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	5
1)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윤리 문제	5
2) 생명윤리 문제로서 임신중절 논쟁	10
2. 임신중절문제와 각국의 현황	14
1) 임신중절을 요구하는 목소리	14
2) 각국의 현황	25
III.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와 찬반논리	33
1.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	33
2. 임신중절의 찬반논리	35
1) pro-life의 관점	35
2) pro-choice의 관점	40
IV.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와 임신중절 최소화방안	45
1.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의 기본성격	45
2.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피터 싱어의 관점	48
3. 임신중절에 대한 톰슨의 관점과 피터 싱어와의 상호보완 가능성	52
1) 임신중절에 대한 톰슨의 관점: 임신부의 자율권 태아의 생명권	52

2) 톱슨과 피터 싱어의 관점 비교 및 상호 보완성	62
4. 태아의 생명에 대한 숙고의 의무와 임신중절 최소화 방안	64
V. 결론	70
참 고 문 헌	72
Abstract	75

국문초록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이 미 경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발달도 또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에 발맞춰 윤리적 문제의 해결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생명윤리적 문제 중에서도 임신중절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는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친화력이 있다. 피터 싱어는 임신중절의 문제해결을 임신부의 자율권에 맡긴다. 그는 사회복지와 임신부의 자율권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피하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밀접한 해결방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시대에 주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주장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톰슨의 주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본 논문은 피터 싱어의 관점을 주축으로 각국의 임신중절 실태, 톰슨의 관점과

의 상호 보완성, 임신중절의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까지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주요어 : 생명윤리, 임신중절, 공리주의, pro-life, pro-choice

I. 서론

1. 연구필요성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경계선(line)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생명 윤리 문제와 더욱 민감한 관련성을 맺는다.

1992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베이비 테레사’로 알려진 무뇌아였던 피어슨(T. A. C. Pearson)의 사례를 보자.¹⁾ 자신들의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며, 설사 오래 산다 해도 의식적인 삶(conscious life)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테레사의 부모는 테레사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이 부모는 자기 아이의 신장, 간, 심장, 폐, 눈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에게 기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의사들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플로리다 주의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9일후에 테레사는 사망하였고, 이때 테레사의 장기는 이식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플로리다재판부는 “장기이식을 받으려고 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사망하였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죽음을 이러한 결정의 실제적인 대가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또한 테레사에 대한 신문기사는 대중들에게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테레사가 살아 있을 동

1) 피터 싱어/헬가 커스 편 『생명윤리학1』 (서울: 인간사랑, 2005), 40쪽

안에 테레사를 바로 죽게 하는 장기적출이 옳은가?” 라는 것이었다. 만약 장기이식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어있지 않았더라면 테레사는 자연스럽고 조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출과 이식에 관한 기술의 발달로 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피임이나 임신진단, 그리고 안전한 낙태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들 또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특히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인 낙태,²⁾ 즉 임신 중절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낙태는 인류역사 이래로 가장 오래되고도 논쟁적인 생명윤리 주제 중 하나이다. 선사시대에도 성과 생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영아살해와 낙태가 존재했고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와 로마에서 낙태는 부(父)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낙태가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오늘날의 ‘낙태’를 반대하는 윤리적 관점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이 ‘생명’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기독교적 논지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윤리적 관점은 낙태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에 너무 이론적, 추상적, 정책중심적, 국가중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윤리적 문제의 발생도 그만큼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2) 낙태(abortion)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외과적 수술이나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임신중절과 낙태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11~12세기 이후, 갖가지 신통치 않은 피임과 낙태 비법들이 번역물을 통해 아랍 세계에서 서방으로 전해진다. 이집트 창녀들은 피임용으로 일종의 폐사리나 탐폰과 같은 질 내 삽입 좌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세에는 정자가 자궁의 ‘거친 내벽’에 안착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관계시 몸을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고 또 하품을 여러 번 한다든지 아홉 번 제자리 뒹을 하면 유산한다는 속설도 있었다. 아랍약전에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독극물, 즉 서양삼나무 기름, 후추, 민트, 코끼리의 대변 따위를 넣은 좌약을 만드는 법까지 적혀 있었다.

급격하게 발생하고 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낳은 윤리적 문제들이 그냥 방치된다면 우리사회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윤리 분야 중 생명윤리, 그중에서도 ‘소리 없는 절규’와 함께 매년 수십만 명의 태아가 희생되는 임신중절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제대로 해명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터 싱어³⁾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이슈화 되곤 한다. 하지만 언론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해결책은 무엇이며 그것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낙태나 자살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OECD국가 중 낙태, 자살률 몇 위’ 등의 기사가 그러하다. 마치 낙태, 자살 등의 생명윤리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특히 피터 싱어의 관점을 통해 임신중절이 왜 문제이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른 윤리학자들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 보완가능성을 모색해 보려고

3) 1942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생명윤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터 싱어는 실천윤리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양한 저술 및 강연을 통해 그의 실천윤리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기준설정애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제공했다.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와 각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와 찬반논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철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토대로 IV장에서는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에 근거한 임신중절의 문제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톰슨의 견해와 상호 절충 가능한 지점을 탐색하며,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타 관점과 보완된 피터 싱어의 관점이 임신중절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종합적인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와 임신중절

1.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

1)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생명윤리 문제

근대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인권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특히 현대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은 인류의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고 인권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객관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근본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에까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과학기술은 기술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선의 또는 합법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위협적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이용에 대한 지속적 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기술은 공간적으로 지구촌 전체를, 시간적으로 무수한 미래세대에게 연쇄적 인과관계를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삶의 끝에서도 그러하듯이 삶의 시작에서도 해묵은 문제를 재생산 한다. 1978년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가

4) 진교훈,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 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카톨릭 법학』, 제1호, 2003, 13쪽.

탄생함으로써, 체외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산모의 자궁에 착상하여 정상아로 태어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시험관 아기의 탄생은 의학 기술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졌고 수백만의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인간 배아 연구라는 새로운 과학 연구의 지평이 열렸다. 그리고 많은 윤리적 의문이 뒤따랐다.⁵⁾

시험관 아기의 경우 인간 배아는 산모의 신체 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산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는 것은 시험관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⁶⁾ ‘생명 옹호론자’들은 지체 없이 배아는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윽고 그들도 인간 배아 연구의 가능성 때문에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낙태는 겨우 세포 몇 개로 이루어진 배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될 즈음이면 배아는 적어도 2주 동안 자라서 자궁 안에 착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착상 전의 초기 배아가 개별적인 인간이나 아니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조차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가톨릭 신학대학 학장인 노먼 포드 신부는 수정 후 배아가 14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란성 쌍둥이로 분할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곤란을 느꼈다. 이는 임신 초기 동안의 배아는 인간 개체라기보다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포드 신부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배아를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 개체로 본다면-예를 들어 그 배아를 마리오나라고 부르자-그 배아가 분할된 경우 마리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새롭게 만들어진 쌍둥이는 마리오와 루스인가? 아니

5) 구영모, 『생명의료윤리』(서울: 동녘, 2004), 88쪽

6) 앞의 책, 89쪽

면 전혀 다른 새 쌍둥이 루스와 에스더인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역설이 된다. 만약 마리온이 아직 존재한다면, 쌍둥이 중 어느 쪽이 마리온인가? 그들 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원래의 마리온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한편, 두 명의 쌍둥이 중 어느 쪽도 마리온이 아니라면, 마리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걸까? 마리온은 사라져버린 걸까? 우리는 한 인간 개체의 손실을 슬퍼해야 할까? 마치 내 딸들 중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면 설령 다른 두 딸이 더 생긴다 해도 여전히 슬플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포드는 쌍둥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세포 덩어리들이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수태되는 순간이 아니고, 14일 뒤에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라고 했다. 교회는 그의 견해를 승인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았다.⁷⁾

인간 개체의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과학으로 인해 수태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해 정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란에도 간섭을 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수태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의 수태란 약 24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수태는 정자가 난자의 바깥층을 통과하면서 시작된다. 이 바깥층은 폐쇄되고, 다른 정자는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때에도 난자와 정자의 유전적인 물질은 아직 분리된 채로 있다. 여성의 유전적인 물질은 난자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생식핵(pronucleus)’이라는 것 속에 뭉쳐 있는데, 그 생식핵은 다시 난자를 채우고 있는 걸쭉한 물질에 둘러싸여 있다. 정자가 난

7) 같은 책, 89-90쪽

자로 들어간 후에 정자의 꼬리는 사라지고 그것의 머리는 또 다른 생식핵을 형성한다. 처음에는 걸쭉한 유동물질 위를 떠다니는 두 개의 섬처럼 보이는 두 개의 생식핵이 점점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유전 물질은 정자가 난자로 들어간 지 22시간 뒤 배우자 합체(syngamy)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섞이게 된다. 한 개체(또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두 개체들)의 유전적 구성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혼합에 의한 것이므로, 수태는 배우자 합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가를 묻는 것은 마치 하나의 핀 위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하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논쟁처럼 의미 없어 보인다.⁸⁾

그러나 인간 생명이 수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는 사람이 정확히 어느 순간에 죽는가라는 논쟁만큼이나 실제로 중요하다.

1986년과 1987년에 걸쳐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칼 우드(Carl Wood)와 앨런 트룬슨(Alan Trounson)이 주도하는 모나시 대학교의 체외 수정팀은 불임 치료를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팀은 정자수가 많이 모자라는 한 남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미세주사를 사용해 정자 하나를 난자에 주입한 뒤 정상적인 수정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의 법은 체외 수정 시술을 하고 남은 배아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실험을 위해 배아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우드와 트룬슨이 체외 시험관에서 배아를 만들어 미세 주사로 그것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만든 배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현미

8) 같은 책, 90-91쪽

정을 통해 관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⁹⁾

하지만, 우드와 트룬슨은 수정란의 유전적 이상 따위를 검사하지 않은 채 배아를 산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환자를 비정상적인 임신의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세주사로 난자 40개에 정자를 주입한 뒤 유전 물질이 혼합되는 배우자 결합 직전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정부 자문 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고는 연구를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정 과정에 있는 난자가 배우자 결합 이전에도 하나의 배아인가 하는 여부를 정부 자문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처음에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해 4대 4로 의견이 갈렸었지만, 결국 대다수의 의견으로 빅토리아 주 정부 측에 정자가 난자에 침투하는 그 순간부터 배우자 결합 직전까지 인간 난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법을 개정했고 실험이 이루어졌다. 약 40개의 인간 난자가 수정되고 실험을 위해 현미경에 고정되었다. 이것이 40명의 인간 생명을 파괴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정자가 난자에 침투한 순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자와 난자의 유전물질이 혼합되는 순간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¹⁰⁾

수태에 관련된 문제만 불명확한 것이 아니다. 생식 의학의 혁명적인 발전은 배아의 지위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실험실 유리 접시 속에 있는 배아를 보고 있노라면 모든 인간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똑같이 소중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물론 그 배아가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부에게 소중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배아는 그들이 그토록

9) 관찰을 위해 일단 현미경에 고정된 배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10) 구영모, 앞의 책, 91-92쪽

원하던 아이로 탄생할 수 있는 존재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배아가 실험실의 액화 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되어 있는데, 그 부부가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면(우드와 트룬슨의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배아가 어떤 의미에서건 소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어떤 여인이 자원해서 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할 수도 있다(이때에는 운이 많이 따라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시험관 시술 기관에서도 착상 성공률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배아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어떤 특정 부부가 그 배아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아가 가지는 출생의 잠재성 때문인가?¹¹⁾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대한 반론이 있다. 배아가 특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아를 해치는 것이 필요와 욕망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배아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배아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한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2) 생명윤리 문제로서 임신중절 논쟁

임신중절(낙태)에 관한 문제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격렬한 윤리적, 법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그토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쟁을 유발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인

11) 같은 책, 92쪽

간의 기본적 인권의 관련되기 때문이다.¹²⁾

자손을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모든 결정은 특정한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결정이다. 비록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그 존재의 정확한 본성이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말이다.

세상은 이미 인간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손을 낳지 않겠다는 결정은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15년쯤에는 80억 명에 이를 인구를 줄이기 위해 세계 140여 나라의 정부는 인구 성장을 늦추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설령 선진국에서는 식량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구 생태계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의 국민들은 인도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1인당 화석 연료, 광물, 나무를 몇 배나 더 소비한다.¹³⁾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이 1인당 지구 온난화,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정도는 후진국 국민들에 비해 훨씬 심하다. 그러므로 인구 성장률의 감소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필요하다. 환경,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구에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에 일치를 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는 20억에 불과했고, 인구 성장이 곧 세계무대에서 번영하는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 인구 상황이 변화하면서 다출산경향과 낙태에 관한 견해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아나 태아가 잠재적 가능성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설령 인구 과잉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실험실 접시 안에 놓인 특정한 배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해도, 배아의 잠재력을 이유로 그 배아를 신성

12) 정종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존중”, 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카톨릭 법학』, 2003, 45쪽

13) 구영모, 앞의 책, 93쪽

한 인간 생명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두 번째 반론이 있다.¹⁴⁾ 우리는 실험실의 의료진들이 수정된 배아는 소중히 다루어야 하지만, 쓰고 남은 여분의 정자와 난자는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정자와 난자도 조금만 운이 따른다면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 체외 수정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형성하는 것은 가장 수월한 단계이다. 만약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배아가 가진 잠재력을 빼앗아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왜 똑 같은 말을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가? 배아와 정자, 난자는 새로운 인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몇 년 전, 낙태 반대론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미국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존 누넌(John T. Noonan)은 “역사에서 거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논문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은 난자와 정자의 잠재력을 논박하려 했다. 누넌에 따르면, 하나의 정자를 파괴하는 것과 태아를 파괴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자 한 마리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가 될 확률은 2억 분의 1인 반면, 태아는 이미 고통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80%나 된다는 데에 있다. 그는 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¹⁵⁾

대부분의 도덕적 추론이 개연성에 대한 평가이듯, 생명 그 자체도 가능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태되는 순간에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변한다는 것을 도덕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은 현실의 구조, 도덕적 사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만약 임신된 열 명의 아이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태어난다면 이 논증은 달라질 것인가? 물론 달라질 것이다. 이 논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개연성에 호소하는 것이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태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¹⁶⁾

14) 같은 책, 93쪽

15) 같은 책, 94쪽

16) John T. Noonan,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in John T. Noonan (ed.), *The*

최근 발달한 산전 진단 기술은 누년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상 성교로 수정된 경우에도 누년이 제시한 80%, 다시 말해 태아가 생존할 확률이 80%가 된다는 것은 초기 배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에 그 배아가 살아서 출생할 확률은 30%를 넘지 않는다. 착상이 된 직후에는 그 확률이 60%를 밑돈다. 수태 후 약 6주가 지나서야 확률이 80%에 이른다. 이는 자연 임신의 경우이고, 체외 수정의 경우 미세 주사 바늘 속에 들어 있는 정자 한 마리가 아이로 태어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서 수정 후 배아가 한 아이로 태어날 확률과 비슷하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누년의 논증은 무력해져버렸다. 만약 잠재력에 관한 논증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연성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배아들을 파괴하는 것이나 ‘모닝 애프터 필’¹⁷⁾같은 초기 임신 방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초기 배아들은 미세 주사 바늘 속의 정자 한 마리가 생존할 확률을 크게 넘지 않을 정도로 그 개연성이 아주 작기 때문이다.¹⁸⁾

이처럼 생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 개체가 발생하는 점진적인 과정에 하나의 정밀한 선을無理하게 그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풀리지 않는 임신중절 논쟁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첫 단계이다.

Morality of Abortion, Cambridge, Mass. 1970, 56-57쪽, 김일순, N. 포션 편역, 『의료윤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제3장 3절-4장, 139-151쪽에 번역문 전문이 실려 있다.

17) 성교 후 복용하는 피임약

18)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95쪽

2. 임신중절 문제와 각국의 현황

1) 임신중절을 요구하는 목소리

① 영화 <The Wall>

이 영화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 인식과 여성의 지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고도 극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낙태를 바라본 낸시 사보카 감독의 영화 <더 월>¹⁹⁾의 배경은 미국의 50년대, 70년대, 9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52년,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던 시기에 신혼 때 남편을 잃은 클레어는 그녀의 시동생과 한차례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다. 클레어를 자신의 친딸처럼 보살피 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시동생을 보며 클레어는 아기를 낙태시키기로 결심한다. 간호사인 그녀는 의사에게 낙태수술을 부탁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그 누구도 도움을 주기 꺼려한다. 결국 그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유산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그녀가 시도한 방법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클레어는 수술비용이 싼 의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집 식탁에서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실시한 낙태수술은 그녀에게 성공적이기 보단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클레어는 낙태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부작용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²⁰⁾

19) 남명진, 『영화 속 생명윤리이야기』 (서울: 지코사이언스, 2010), 13장 낙태이야기 ‘더 월’, 193쪽

20) 첫 번째 이야기 1950년대

1973년, 클레어가 죽은 지 22년 후 그 집에는 바브라 가족이 살고 있다. 바브라는 2남 2녀를 두고 있고 경찰인 남편과 넉넉지 못한 살림 속에서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매일매일 고된 하루지만, 그런 그녀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작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임신이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바브라는 애를 낳게 되면 자신의 꿈인 작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인식한다. 이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친구가 찾아와 낙태수술을 권유한다. 새로 태어날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를 여성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녀는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²¹⁾

1996년, 클리어와 바브라의 가족이 살던 집에서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대학생 크리스틴과 낙태 반대주의자 코리가 살고 있다. 건측도인 크리스틴은 유부남인 교수의 아이를 가진다. 그러나 가정을 버릴 수 없다는 해리스교수는 크리스틴을 배신한다. 그녀는 심한 배신감과 수치심에 괴로워 하다가 낙태를 결심한다. 반면 코리와 종교단체 여성들은 크리스틴에게 낙태는 반인륜적 행위임을 내세워 설득하려한다. 그러나 이미 결심이 선 크리스틴은 낙태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간다. 때마침 병원 앞은 낙태반대주의자들의 낙태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크리스틴은 두려움 속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낙태수술을 무사히 마친 의사는 병원에 침입한 낙태 반대주의자들에게 총격을 당해 죽음을 당한다.²²⁾

세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낙태에 대해 고민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낙태에 관해 아주 강력한 법적 태도를 취하는 1950년대이다.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아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낳아야 된다는

21) 두 번째 이야기 1970년대

22) 세 번째 이야기 1990년대

의식이 지배적이다. 종교적인 입장과 의무론적인 입장이 지배적임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낙태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는 국가 기관에서 시행을 해 주는 것이다. 태아에 대한 생명존엄으로 가능한 낳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 등과 충돌하게 된다면 낙태도 가능하다는 변화된 시선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낙태를 둘러싼 찬반의 의견 표현이 앞의 두 이야기보다 자유롭다. 이 시대는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낙태를 해 주게 된다. 크리스틴은 생명존엄과 종교적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 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되자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낙태를 하게 된다.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가 총살되는 장면은 낙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날, 개인의 자기결정론이나 자유를 떠나 낙태를 통제하기위한 법적 금지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의 논의가 서양만큼 오래되지는 않았고 폭넓은 논쟁으로도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은 법으로 금지²³⁾되어 있으나 합법적 낙태시술 허용 범위²⁴⁾는 다음과 같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3) 우리나라 형법 제27장 제269조를 보면 낙태를 원칙적으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한다. 하지만 모든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을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음.

24)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술 허용한계 (1973년 제정)

- 강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있지만 현실적인 낙태시술²⁵⁾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이를 더 낳아 키우기 어려운 경우
- 임신이 되었으나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 여성이 직장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미혼여성이 상대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을 때
- 기혼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

2005년 실시된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살펴보면 한해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34만 건, 인공임신중절률은 29.8%로 비교적 높은 임신중절률을 보이고 있다.²⁶⁾ 낙태 금지 및 합법적 허용범위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낙태 선택의 사유를 비교 검토해 볼 때, 임신 중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임신중절의 요청 : M . A. Warren²⁷⁾의 글

25)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낙태와 임신중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구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모자보건법 제2제7호)을 말하며, 한편 낙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행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낙태가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지연 “낙태와 살인- 대법원 2005.4.15.선고 2003도 2780판결”, 『형사판례연구』 14호, 2005, 61쪽

26) 김해중, “각 국의 임신중절 실태”, 『생명윤리』 제7권 제1호, 2006, 1-7쪽

27) Warren(1987)은 “인간”이라는 어휘를 ‘생물학적 종인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을 가진 유전적 의미

세계는 여전히 낙태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양분되어 있다.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낙태가 허용되어 왔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낙태를 금지했던 많은 선진국에서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점차 임신 초기의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최소한 임신 초기에는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낙태가 많은 선진국에서 19세기에 금지되었다. 이러한 금지는 이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지역, 그리고 산업화된 나라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52개의 나라에서 낙태를 단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WHO, 1992). 여기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 폴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몇몇 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²⁸⁾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에서도 그것을 다시 금지시키려는 국내외 조직들로부터의 격렬한 압력이 종종 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폭탄공격이 많이 있었고, 여러 의사와 병원 종사자들이 낙태 반대자들에게 살해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낙태 반대자들이 이런 폭력을 묵과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낙태를 보다 거대한 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²⁹⁾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충돌해있는 가운데 낙태의 도덕적 허용에 대한 찬반논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인간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곤 한다. DNA를 포함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고유한 인간 유전자형을 지닌 새로운 수정된 난자(수정란)를 만든다.

에서의 인간'과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인간'으로 분석하고 태아는 도덕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28) Mary Anne Warren, “낙태”, 피터 싱어/헬가 커스펜, 변순용외 옮김, 『생명윤리학1』 (고양: 인간사랑, 2007), 277쪽

29) 같은 논문, 278쪽

이러한 발달과정은 임신 순간부터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때때로 인간이 어느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정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³⁰⁾ 예를 들어 출산직전의 태아와 출산직후의 신생아가 다른 개체인가? 단지 몇 초 차이로 인간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임의적이다. 즉 발달의 연속선상의 있는 개체에게 어느 순간부터 존재한다고 정의 내리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발달 초기단계라거나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생명유지를 위해 여성의 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수정란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부인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만약 배아와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면, 단지 나이든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만 그것을 죽이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또 부모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또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모가 이미 태어난 자식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면 그런 이유들로 낙태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³¹⁾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러한 주장은 매우 애매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난자의 생물학적 생명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난자는 수정란이 되기 전 이미 여성의 난소에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마침내 수정된 그 난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위의 주장이 난자가 임신순간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잘못된 것이다.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살아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살아 있는 세포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다. 그것이 다른 대부분

30) 여성의 낙태 선택 허용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증('연속성 논증')

31) Mary Anne Warren, 앞의 논문, 282쪽

의 인간 세포와 다른 점은 배수 염색체가 아니라 단수성의 염색체(48개가 아니라 24개의 염색체를 지닌)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정자와 난자의 표준이며, 그들 중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다르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모두 인간이 된다. 단지 생물학적인 인간성이 생명권을 갖는 실체의 자격으로 충분하다면 누군가의 이를 닦는 것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인간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에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은 개별적인 인간 유기체 조직이 그 순간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인간 유기체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의 부분들이다.³²⁾ 그러나 수정된 난자는 다르다.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유일한(쌍둥이가 아니라면) 것이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는 결국 성숙한 인간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수정된 난자들은 개별적인 인간 유기체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조차도 임신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에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어떤 윤리학자들은 아주 초기의 배아(conceptus)는 그것이 발전되어 나타나는 배아(embryo)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정된 초기 2주 동안에 그것은 하나의 분화되지 않은 덩어리이고, 그것들 중 하나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배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배아’(pre-embryo)는 자동적으로 분할되어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다른 전-배아와 결합하여 하나의 태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결국 아주 초기의 배아는 개별적 인간 유기체라고 할 수 없다(Ford, 1988). 이 점이 낙태 논쟁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의적인 인공낙태는 임신 14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피임법³³⁾은 때때로 수정된 난자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

32) 같은 논문, 283쪽

33) pill이나 IUD(자궁내 피임기구)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어떤 낙태 반대자들은 그 피임법을 낙태약이라고 여겨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인간의 전-배아가 개별적인 인간 유기체가 아니라 해도 그것으로부터 발달하는 배아는 인간 유기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모든 인간 유기체에게 생명권이 있는가? 자명하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 배아와 태아는 최소한 처음 3개월간은 보다 더 발달된 인간 유기체와 다르다. 따라서 그것들을 인간 존재로 여기거나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권리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명확한 일이다.³⁴⁾

물론 눈에 띄는 물리적 유사함은 있다. 처음 3개월이 끝날 무렵의 태아는 명확히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과 손, 발 그리고 많은 다른 신체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경험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3개월의 후반부 또는 그 후에도(Burgess and Tawia, 1996) 태아가 사고나 자아인식, 그리고 다른 보다 복잡한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인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초기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그에게 요구되는 어떤 것을 빼앗길 수도 없다. 태아는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을 지닌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제임스 레이첼이 말한 ‘전기상의(biographical)삶’, 즉 이미 경험을 시작한 생명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태아는 자기생명의 가치를 아직 알 수가 없다³⁵⁾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태아가 우리자신의 것과 같은 생명권을 지닌다는 주장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³⁶⁾

34) Mary Anne Warren, 앞의 논문, 284쪽

35)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치의 부재를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36) 같은 논문, 285쪽.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치지하고서라도 임신중절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들이 있다. 우선, 대다수의 여성들은 최소한 가임기간의 여러 해 동안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다. 대부분의 여자들 이(남자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를 원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그들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성 간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것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걸쳐 여성들이 대개 아이 양육에 주된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능력은 남자들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주 주의 깊게 피임을 하여도 그것이 임신을 막아주는 보증 수표는 아니다. 모든 피임은 실질적으로 실패율이 높고, 가장 효율적인 피임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특히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모든 여성들이 피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나 자유를 지닌 것은 아니다. 가장 싼 피임법조차도 많은 세계 인구의 경제수준을 넘어선다.³⁷⁾ 시골지역에서는 종종 여성들이 피임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교통(transportation)수단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어떤 남자들은 아내가 피임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어떤 종교에서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피임이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 끝으로 어떤 임신은 강간이나 폭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은 그들이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지, 또는 언제 그리고 몇 명이나 가져야 할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없다. 낙태의 자유가 없으면 자신과 이미 있는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

37) Mary Anne Warren, 앞의 논문, 279쪽

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낙태를 하지 못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들도 종종 있다. 아이를 낳은 후 충분한 영양과 의료적 간호가 부족하여 산모가 죽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영아기에 죽는다. 어떤 나라에서 독신 여성들은 임신이 알려진 경우 심각한 벌을 받는데, 때때로 죽음인 경우도 있다. 보다 관용적인 문화에서도 부양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가진 여자를 비난하기도 하며, 그녀 자신은 극심한 빈곤을 겪는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들이 여성이 왜 종종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낙태가 불법인 곳에선 여성들이 범법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은밀한 수술과 약물에 의한 낙태로 인한 죽음 혹은 영원한 신체적 상해를 입기도 한다. WHO는 안전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행해진 낙태로 인해 매일 500명의 여성이 죽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WHO, 1992).³⁸⁾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결여로 인한 고통은 단지 어떤 개별적 여성이나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무한정 수용할 수는 없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의 변화, 가뭄, 침식 그리고 개발로 인한 농지의 상실 등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현 수준의 인구를 부양할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³⁹⁾ 이것이 낙태를 선택할 자유와 그 자유가 없을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낙태금지에 내재되어 있는 자율권의 축소에 초점을 둔 권리에 기초한 논의들도 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 자유

38) 같은 논문, 280쪽.

39) 피임과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자녀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런 여성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많은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⁴⁰⁾ 만약 태아가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논의들이 더욱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태아가 우리들 모두와 동일한 생명권을 지닌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생명권을 지니는 인간을 죽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권을 박탈당할 만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을 고의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태아가 생명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⁴¹⁾

임신이 점점 진행되면서 태아를 단지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태아는 점점 아기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6-7개월부터는 초보적인 수준의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진행될수록 낙태 허용이 어려워진다.⁴²⁾ 법에서도 또한 낙태를 규제할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지 무엇이 개인의 힘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만을 함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현실적 가난의 극복이 어려운 빈자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 물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조화를 가져오는가의 대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자발적 낙태가 해가 된다는 믿음도 비실증적인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다. 사람의 믿음과 신념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인 한사람의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다른 믿음에 의해 나의 믿음이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많은 사회에서 다

40)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또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권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부분의(모두는 아니지만) 여성주의자들과 시민 자유주의자들(civil libertarians)은 이러한 침해가 인간이 지니는 완전하고 평등한 도덕적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도덕적 지위와도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41) Mary Anne Warren, 앞의 논문, 281-282쪽.

42) 같은 논문, 287쪽.

수가)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생식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⁴³⁾

2) 각국의 현황

① 미국의 현황

미국의 임신중절 관련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자면 로(Roe) 대 웨이드(Wade) 재판이다.⁴⁴⁾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은 획기적이었고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의 취지와 그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임신중절 문제의 위상에 대한 이해를 다질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임신중절 논쟁은 보수파와 진보파의 논쟁으로 파악된다. 보수파는 종교의 영향도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를 자칭할 때는 태아를 ‘보수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 이 관점을 생명존중파(pro-life파)라고도 불린다. 원칙적으로 수정순간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보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 또한 그때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체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존속이 대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다만 태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간이고, 산모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므로 모체를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가 있더라도 태아의 생명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3) 같은 논문, 290-291쪽

44) 성(sexuality)의 자유문제를 프라이버시 권리로 승인한 미대법원의 선도적 판례는 1965년 내려진 그리스 월드 판결을 들 수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미대법원은 성인의 기혼자에게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자를 코네티컷 주의 법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여성의 낙태 결정을 프라이버시 권리로서 인정한 시금석이 된 판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의 진보파는 태아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산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선택권 존중파(pro-choice파)라고도 불린다. 정치적인 진보파와도 겹쳐 있고, 페미니즘 운동 등도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산모의 선택에는 임신중절도 포함되어 있고, 임신중절도 여성의 권리로서 용인한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 속에서 나왔던 것이 로 대 웨이드 재판 판결로 여기서는 중절을 명확하게 용인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중절에 대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19세기에 이르러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는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1)불륜을 경계하는 19세기의 이른바 빅토리아적 윤리관, (2)임신중절이라는 처치가 여성에게 초래할 위험, (3)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이해관심이다. 현재 윤리관도 변화였고 의학의 진보에 따라 위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3)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는 (3)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그와 더불어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할 임무도 있다고 판결은 본다. 프라이버시 권이란 개인적 사정을 당사자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처리하는 권리이고, 여기에는 중절의 결정도 포함된다. 요컨대 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제한의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적으로 태아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인간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따름이다.

판결은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 결국 국가는 여성의 건강이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장래 사람이 될 생명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의 이해관심을 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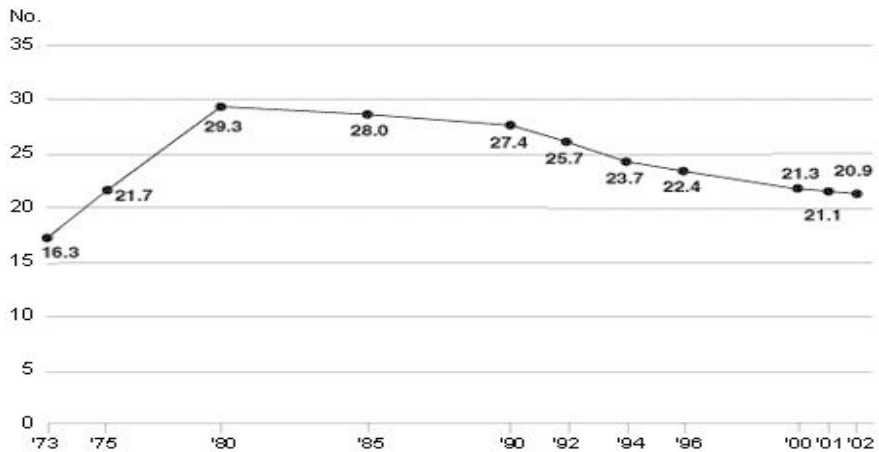
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임신의 단계가 진척됨에 따라서 심각해진다고 판결은 보았다. 그래서 판결이 보여준 구체적 지침은 다음과 같이 임신 3기설을 따랐다

- (a) 일반적으로 제1기 종말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중절의 결정과 그 실시가 임산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 (b) 일반적으로 제1기 종말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모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발동해야 하며, 모체의 건강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으로, 필요하면 중절처치를 규제해도 좋다.
- (c) 생육 가능성을 확보한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잠재적인 인명에 대한 관심을 발동해야 하며,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면 산모의 생명 유지 또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하면 중절을 규제하거나 지해도 좋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중절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그 판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보수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 판단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 판결문에 따르는 경우라도 그 운용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더욱이 미국은 합중국(합주국)이고 일본과는 달리 주가 대폭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다(위 판결문에서 state를 국가로 번역했으나 미국에서는 주를 가리킨다). 그래서 각 주마다 각기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판결은 논쟁에 매듭을 지었다기보다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중절 문제는 미국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여전히 큰 쟁점이다.⁴⁵⁾

45) 이마이 미치오, 김일방·이승연 옮김, 『삶, 그리고 생명윤리』 (파주: 서광사, 2007), 107-110쪽

[그림1] 미국에서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1973-2002년 15-44세 여성 1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⁴⁶⁾

② 일본의 현황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권의 미국에서는 엄격한 반면, 일본에서는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 같다. 16세기 후반 무렵 일본에 온 유럽 선교사들은 중절(낙태), 더구나 영아 살해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예를 들면 루이스 후로이스(Luis Frois, 1532-1597,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⁴⁷⁾

유럽에서도 태어날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아주 흔한 일로 스무 번이나 낙태를 시킨 여성이 있을 정도다. 유럽에서는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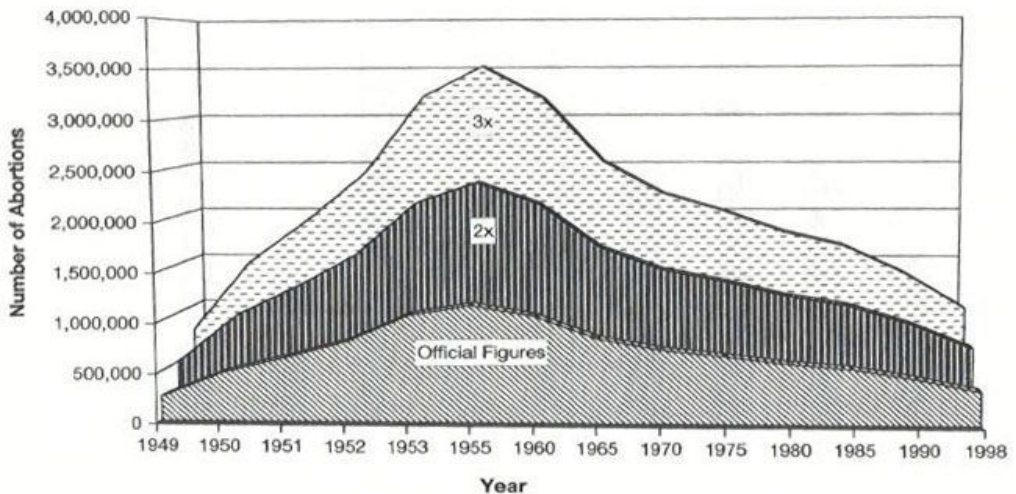
46) 김해중, 앞의 논문, 5쪽

47) 이마이 미치오, 김일방·이승연 옮김, 앞의 책, 101-102쪽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여성들은 양육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모두 다 목 위에 밧을 얹어 죽여 버린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 온 것은 시대적으로도 제한돼 있고 그들 특유의 편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본에서는 중절에 관대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⁴⁸⁾

[그림2] 일본에서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인공임신중절(1949-1998)⁴⁹⁾

48) 일본의 경우에는 1996년 우생보호법을 모체보호법으로 法名을바꾸었는데 이는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함에 있는 것이고 장애아의 출생으로 인한 부모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의 방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우연히 돌연변이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비유전적 질환을 의미함. 또는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異常 을 가진 아이는 그냥 출산하라는 취지로 파악된다고 한다. 전지연 “낙태와 살인-대법원 2005.4.15.선고 2003도 2780판결”, 『형사판례연구』 14호, 2005, 204쪽

49) 김해중, 『생명윤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2006, 6쪽

③ 영국⁵⁰⁾의 현황

1803년 이전에는 태동의 유무에 따라 임신중절을 별하였지만 태동이 있는 후에 실시한 임신중절일지라도 심한 벌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 중 어느 시기라도 임신중절을 실시한 여성에 대해 중신형을 가한다고 공포한 1803년의 ‘Irish Chalk Act’와 1861년에는 임신중절을 하거나 시도한 모든 여성에게 3년간의 징역을 가하는 중죄로 하는 ‘Offenses Against the Person Act’가 통과되면서 모든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Person Act’⁵¹⁾는 임신부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만 임신 2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주는 ‘Infant Life Preservation Act’⁵²⁾로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임신중절은 불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중산층의 여성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좀 더 안전하게 유산시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돈이 없는 노동층의 여성들은 자격이 없는 불법 시술자들에게 좀 더 싸게 그리고 위험하게 시술을 받게 되어 인공임신 중절로 인한 모성사망률이 증가하게 되어 법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1967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를 임신부의 육체적인 건강에 한하였던 것을 범위를 넓혀 임신부의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Abortion Act’⁵³⁾를 제정하였다. 2004년도에 영국과 웨일즈에서 보고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85,400건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은 17.8%이었다. 이 숫자는 2003년보다 2.1% 증가된 수치로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이래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82%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국가보건의제도(NHS)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88%의 인공임신중절은 13주 이

50) 영국은 England, Wales, Scotland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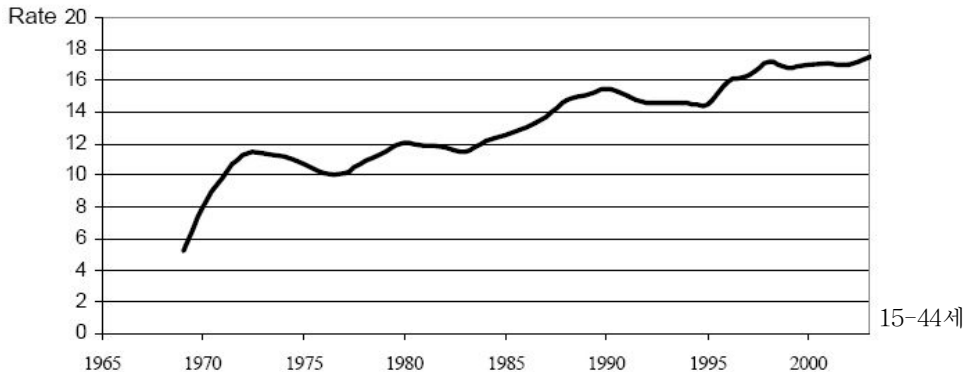
51) 개인에 관한법

52) 유아생명법

53) 낙태법: 임신 24주까지 두 명의 의사가 여성과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임신을 지속했을 때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판단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에 이루어졌고 이중 60%는 10주 이하에 이루어졌다.

[그림3] 영국에서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1969-2004)⁵⁴⁾

④ 한국의 현황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정해졌으나 인구의 양적 억제정책이 시작되던 시기인 1973년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일부 합법화⁵⁵⁾하여 피임 방법과 함께 출산조절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외 남아출산, 태울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정부도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73년도에 발표된 모자보건법은 현재의 사회상이나 의료기술을 볼 때 적절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몇 차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임신중절건수가 15만 건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전체 여성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

54) 김해중, 앞의 논문, 4쪽

55)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임신주수는 임신12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료는 전무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의 수준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은 유배우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 표본조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조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표본 사례조사 등이 있으나 전체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보면 1994년도 총 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은 28.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26.1%, 2000년에는 24.1%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전체가 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건수는 342,433건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은 29.8%이었다. 이중 기혼여성의 임신중절률은 28.6%, 미혼여성은 31.6%으로 미혼여성에서 좀 더 높은 임신중절률을 보였으며, 이중 25-29세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57.8%로 같은 연령대의 기혼여성의 임신중절률 4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충동적 성문화가 번지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의 성의식이나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되었고, 체계적 인성교육과 프로그램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의 혼전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사건은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 생식건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의료인력의 낭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는 성의식 및 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대비한 성교육 및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⁵⁶⁾

56) 김해중, 앞의 논문, 7쪽

Ⅲ.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와 찬반 논리

1.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

생명의료윤리학계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생명존중론자와 찬성하는 선택론자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며, 심지어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를 생명권 옹호론자가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전역을 발각 뒤집어 놓을 만큼,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임신중절 건수가 100만 건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러면 임신중절에서 핵심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변은 다음과 같다.

- (1)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 (2)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 (3)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
- 따라서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서 타당하게 도출된다. 따라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전제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전제 (1)은 거의 모든 윤리이론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윤리 원칙이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증명의 부담이 크다. 전제 (3)은 적어도 태아가 체외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지니기 전에는, 현재의 의

술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⁵⁷⁾ 사실 전제 (3)은 엄밀히 말해 윤리적 물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의 물음으로 의학이 그 참·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다.⁵⁸⁾ 그래서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은 전제 (2)를 부인한다.

그런데 전제 (2)에는 두 가지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태아는 인간이라는 명제요, 다른 하나는 태아는 무고하다는 명제이다.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태아는 인간이라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임신중절은 항상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살인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써, 우리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들 수 있다. 태아가 인간이라고 해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임신중절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태아의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 태아를 여자의 신체에 붙어 있는 하나의 혹으로 취급해 버리면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은 아예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체의 혹을 제거하는 것은 윤리의 물음이 아니라 건강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태아의 인간성에 관한 이러한 상반되는 두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옳은가? 이는 요즈음 환경윤리와 의료윤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도덕적 지위(moral standing)’에 관한 물음과도 관련된다. 즉, 누가 혹은 무엇이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⁵⁹⁾ 생명권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해 어떤 대상이 가져야 할 속성

57)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126쪽

58) (3)이 필연적 진리는 아니다. 임신중절이란 단지 임신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공자궁이 개발되면 여성은 임신을 중단시키면서 동시에 태아를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태아의 죽음을 의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아를 살리는 임신중절로 논의를 하였다.

59) 김상득, 앞의 책, 127쪽

은 무엇인가? 이처럼 임신중절의 도덕성은 태아가 인간 존재로 지니는 존재론적 위상은 쉽게 해명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고 생각된다.

2. 임신중절 찬반논리

1) pro-life⁶⁰⁾의 관점

주장1)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다. 사람들은 임신을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한다. 무분별한 성관계를 즐기다 임신된다 해도 낙태로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가없는 생명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만 100만 명 단위를 가볍게 넘어선다. 그러나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다. 결코 산모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소유물이 아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기에 어쩌면 쾌락만 탐하는 무책임한 산모의 인생보다 더 귀할 수도 있다. 누가 뭐래도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다. 그런데도 엄청난 살육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⁶¹⁾

낙태를 단순히 생활안정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 탓이다.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가 어디까지 갈지 무섭다. 더구나 첫 번째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로 이어진 가장 큰 요인은 혼전임신이다. 혼전임신이 사생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을 앞당겨 출산하기도 하지만 혼전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나 혼전임신 상대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많은 혼전임신은 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은 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절을 택한다. 또한 터울 조절의 목적으로 임신

60) 임신중절 합법화에 반대하는 관점

61) 이진용 『임상윤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 연수원 편 1999), 197-198쪽

중절을 택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혹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행위지만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까지 가세해 여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무참히 살해된다. 물론 낙태가 순위울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코 바른 방법은 아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자식을 죽이는 인간들은 분명 살인자다. 보다 철저한 법적 용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라는 전제로부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장2) 태아가 수태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낙태 논의의 전반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수태 시점을 제외한 어떤 시점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단세포 접합체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출생 직후의 신생아 역시 임신부의 몸속에서 성장을 계속해 온 개체와 동일한 개체임을 생각할 때, 출생 시점에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자유주의자⁶²⁾들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출생 바로 직전의 태아를 생각해보자. 출생 1초 전의 태아는 인간이 아닌 반면 그 1초 후인 출생 시점의 태아는 인간이라는 견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출생 1/10 초 전의 태아와 출생 시점의 태아를 비교해 보면 위의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⁶³⁾ 마찬가지로 출생 1초전의 태아와 2초전의 태아를 구분하여 전자는 인간인 반면 후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그 출생 2초 전의 태아와 3초 전의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미끄러짐은 수태 시점에서 멈

62) 철학자들의 낙태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중 하나이다. 보수주의적 진영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태아는 수태 시점부터 (즉, 단세포 접합체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의 철학자들은 태아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들에 의하면 태아는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혹은 출생 이후의 어떤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한편 절충 주의적 입장의 철학자들은 위의 두 극단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수태와 출산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부터(비록 그들 사이에도 그 시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태아는 생명권을 지닌다는 입장을 취한다.

63)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성남.분당: 철학과 현실사, 1999), 190쪽

출 것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즉 그들에 의하면 출생과 (혹은 출생 이후의 그 어느 시점과) 단세포 접합체 사이의 그 어느 시점을 태아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그 시점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태아가 수태 시점부터 (즉 단세포 접합체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⁶⁴⁾ 요컨대 ‘수태 시점을 제외한 어떤 시점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3) 태아도 인간과 같은 미래의 잠재성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수태 시점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단세포 접합체 역시 신생아와 동일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 결정을 내린 임산부에게는 (임신부가 미혼이라고 해보자) 태아가 암세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위의 보수주의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단세포 접합체와 암세포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암세포를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태아와는 달리 인간이 될 수 없다.

마키스(Donald Marquis)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태아에게 (현 상태에서 인간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 태아를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이유는 그의 가치 있는 미래를 빼앗기 때문이다. 출생 후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 혹은 어른에게 미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에게도 미래가 있으며, 어린이나 혹은 어른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듯이 태아를 죽이는 것 또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⁶⁵⁾ 한마디로 태아

64) 같은 책, 191쪽

65) Donald Marquis, "Why Abortion is immoral", *Journal of Philosophy*, 1989, 25쪽. 간혹 태아

도 인간과 같은 미래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4) 태아는 부모와는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다. 만약 태아가 어머니 몸의 일부라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임신중절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부모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⁶⁶⁾ 즉 그 태아가 탄생 후 갖게 될 눈의 색깔, 개인적인 병력 등이 이미 어머니나 아버지와는 별개로 유전자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와 별개의 다른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독립적인 개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태아가 어머니의 일부가 아니라 한 명의 개별적인 인간이라면, 우리는 태아를 어머니 몸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어머니가 행사하는 신체의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태아가 산모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은 태아가 발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생존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몸에서 일정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비록 몸은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태아는 심지어 어머니의 육체까지도 자신이 조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는 착상 후 3일 내에 호르몬을 분비하여 어머니의 월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탄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골반 뼈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태아는 태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우리는 태아와 어머니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⁶⁷⁾ 결국 태아는 부모와는

가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다는 입장도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위의 입장은 절충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일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태아는 출생 이후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출생 시점에 생명권을 지닌다는 입장을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임종식, 앞의 책, 192쪽

66) 김성한, 『생명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39쪽

67) 같은 책, 40쪽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리) 위의 4가지 주장은 보수주의자들(pro-life), 즉 낙태반대론자의 주장들이다. 위의 보수주의적 입장의 철학자들은 태아의 여러 발달 단계 중 수태 시점에 선을 그어 태아는 단세포 접합체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위의 4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⁶⁸⁾

- 영혼을 지닌다.
- 유전적으로 인간이다.
- 태아의 연속적인 발달 단계 중 수태 시점을 제외한 어떤 시점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시점으로 보아도 그 시점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 신생아나 어른에게 미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단세포 접합체 역시 미래가 있다.

위의 4가지 주장은 태아는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니며, 태아의 생명권이 임신부의 자율권보다 앞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임신부의 자율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앞서므로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강간에 의하여 수태된 태아도 인간이며 따라서 생명권을 지닌다면, 임신부는 9개월간 자신의 몸에서 키워 출산하고 양육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68) 임종식, 앞의 책, 189쪽

하는가? 물론 강간을 당한 직후에 자궁소독을 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폭행 수일 내에 소파수술을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 경우 위의 시점을 넘겼다 할지라도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⁶⁹⁾ 이처럼 ‘무고한 인간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태아도 생명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수용해도 낙태는 언제나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

2) pro-choice⁷⁰⁾의 관점

주장1)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된다.**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특히 여성은 경제적인 소외로 인해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남성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경제적인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현실은 부지불식간에 불평등한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이는 태아의 생명권에 앞서는 여성의 권리다.⁷¹⁾ 한마디로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 된다’는 것이다.

주장2) **임신중절을 불법화할 경우 여성의 건강이 손상될 수 있으며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여성 들은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하려 한다. 성

69) 같은 책, 184쪽

70) 임신 중절 합법화를 지지하는 관점

71) 김성한, 『생명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29-30쪽

감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이 아닌 태아라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여성의 복리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아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산모가 미혼모라든지 이혼을 한 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든지 강간을 당했다든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곤경에 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신중절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신중절이 불법이라면 일반 병원에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시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때 임신중절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행될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낙태 시술을 받게 될 수가 있다. 이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⁷²⁾ 결론적으로 ‘임신중절을 불법화할 경우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으며 자칫 목숨이 위협해질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주장3) **낙태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내가 폭력을 휘두를 때 이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콧구멍을 후빈다고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나는 그런 행위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중절은 이처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며, 나아가 임신한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점까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

72) 같은 책, 31쪽

서 임신중절은 불법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임신중절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아가 산모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⁷³⁾ 요컨대 ‘낙태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라는 주장이다.

주장4)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태아가 일반인들이 갖는 생명권과 신체 보호권 등을 갖지 못하는 데 비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 혹은 자신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복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복리 추구권은 태아의 권리에 비해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⁷⁴⁾ 한마디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리) 위의 4가지 주장은 pro-choice, 즉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낙태찬성론자 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

-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없다.
- 임신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선다.

그렇다면 태아가 출생 이전까지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pro-choice의 입장을 가진 사

73) 같은 책, 32쪽

74) 같은 책, 33쪽

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출생 이전까지 자의식을 갖지 못한다.
- 출생시점에서야 비로서 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 출생시점에서야 비로서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근거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출생 직전의 태아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생아 역시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생아 역시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⁵⁾

또한 출생시점에서 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은 출생 후에는 모체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신생아는 모체와 주위환경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신생아도 생명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근거도 또한 설득력을 지니지 않는다. 아이를 가지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태아가 자연 유산된 경우와 미혼 여성이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전자의 경우 온 가족이 이미 출산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출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을 때, 그 태아는 이미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족에게 태아가 차지한 비중이 미혼모가 낙태시기를 놓쳐 출산한 신생아가 미혼모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⁷⁶⁾

다음 장에서는 pro-life의 입장과 pro-choice의 입장을 비교·검토함으로

75)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성남.분당: 철학과 현실사, 1999) 193쪽

76) 같은 책, 194쪽

써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며, 이 논문의 주요 방법론인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을 기본 모델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V.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와 임신중절 최소화 방안

1. 피터 싱어 생명윤리의 기본성격

피터 싱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즉 ‘생물학적인 인간’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다. 우선 생물학적인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member of the species homo species)’이라 일컫는다.

어떤 존재가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인가의 여부는 과학적으로, 즉 살아 있는 유기체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성질을 검사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인간인 부모에 의해 배태된 태아가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주 전반적으로 치유불가능하게 지체된 ‘식물인간’도 인간임에 틀림없다.⁷⁷⁾

한편 ‘인격체로서의 인간(person)’과 관련하여 상황윤리학자인 플레처(J. Fletcher)는 ‘인간성의 지표(Indicator of Humanhood)’라고 일컫는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즉 “자의식, 자기통제, 미래감, 과거감,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존재를 피터 싱어는 이른바 인격체(person)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기태아, 후기태아, 심한 정신장애아, 신생아 및 식물인간 등은 단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일 뿐 결코 인격체라는 인간의 범주에는 포

77)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109쪽

함될 수 없다고 본다. 피터 싱어는 먼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의 의미에서 인간 생명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존엄성을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의 신념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편파적인 인간종족 중심주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우리의 현재의 태도는 기독교가 출현할 때부터 시작한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요시하게 된 데는 특별한 신학적 동기가 있었다.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것은 불멸하며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을 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를 죽이는 것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존재는 영원한 운명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기독교의 교리 중 두 번째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그의 소유이며, 인간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살 때와 우리가 죽을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주장했듯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노예를 죽이는 것이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죄가 되듯이 하나님에게도 죄가 된다. 반면에 인간이 아닌 동물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창세기 1장 29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한 것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있었다.....중략..... 마찬가지로 우리 종족의 구성원의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신념도 재평가해야 할 때이다.⁷⁸⁾

78) 같은 책, 113쪽

반면에 두 번째 의미로서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피터 싱어는 자기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단지 의식적이기만 한 생명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즉 어떤 사람에게 생명권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가 인격체이기 위한 조건을 갖춘 사실에 있는 것일 뿐, 그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인격체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생명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또한 불가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감각이 있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지도 자의식적이지도 않아서 인격체가 아닌 많은 존재들이 있다. 이러한 존재들을 나는 의식적(conscious) 존재라 부르겠다. 인간이 아닌 많은 동물들은 거의 확실히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신생아와 약간의 정신적 장애인들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⁷⁹⁾

대부분의 인간은 자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격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격체의 생명이 단지 의식적이기만 한 생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의식적인 존재는 단지 의식적인 존재와 비교할 때 고통이나 쾌락을 더 예민하게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격체와 관련하여 피터 싱어는 모든 사물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는데. 첫째, 무감각한 것, 둘째, 감각은 있으나 자의식을 갖지 못한 것, 셋째, 감각과 자의식을 가진 것 등이다. 여기에서 그는 마지막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모두 인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79) 같은 책, 122쪽

의 견해에 따르면 물고기 등은 두 번째 유형에, 다른 많은 동물들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이외에도 자의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생명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고래 및 돌고래 등은 인간이 아닌 인격체 중에서 가장 명백한 사례라 말한다. 반면에 태아, 신생아 및 심한 정신 장애아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피터 싱어의 관점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태아 = 인간”이라는 기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태아는 임신의 순간으로부터 혹은 어떤 발달단계에 있든 다른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논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제: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일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인간의 태아는 죄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일은 그릇된 일이다.⁸⁰⁾

첫 번째 전제는 받아들이되, 두 번째 전제는 거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종류의 대응은 어떤 전제도 거부하지 않으나, 이들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⁸¹⁾을 거부한다. 이러한 대응 중의 어느 것도 논변의 첫 번째 전

80) 같은 책, 185쪽

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간생명의 신성함이란 교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보수주의적의 첫 번째 전제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논변의 첫 번째 전제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가치부여에 근거하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이 두 개의 다른 개념, 즉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과 인격체라는 이 두 개념에 발을 디디고 있음을 보았다. 이 말이 이렇게 일단 분리되면, 보수주의자들의 첫 번째 전제의 취약성은 명백해진다. 만약 ‘인간’이 ‘인격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게 되면, 태아가 인간이라는 두 번째 전제가 거짓임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태아를 합리적이라거나 자의식적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때는 보수주의자들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옹호가 도덕성을 결하고 있는 특징에 기초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즉 한 존재가 우리 종족의 일원이나 여부는 그 자체로서는, 한 존재가 우리 인종의 일원이나 여부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의 그릇됨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른 특징과 상관없이 한 존재가 우리 종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의 그릇됨을 크게 좌우한다는 믿음은,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논쟁에 끌어들이기를 주저할, 종교적인 교리의 유물이다.⁸¹⁾태아와 다른 동물과의 비교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한다. 대립하고 있는 이익간의 계산이 감정을 가진 동물을 죽이는 것을 요구할 때, 그 죽임이 가능한 한 고통 없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경우에는, 자비로운 죽임의 중요성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신중절의 경우

81) 혹은 임신중절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82)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앞의 책, 186쪽

에는 여기에 관심이 덜 기울여지고 있다. 임신후반기의 임신중절은 종종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낭에 소금물을 주입함으로써 시행된다. 이렇게 하면 태아는 경련을 일으키고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후에 죽는다고 보고되어 왔다. 그 다음의 죽은 태아는 자궁으로부터 끌어내어진다. 어떤 임신중절 방법이 태아에 고통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면, 그 방법은 피해야만 한다.⁸³⁾ 임신중절 반대론자 중 일부는 태아가 현재적 특징에 의거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과 비교될 경우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고려하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되고, 태아는 어떤 닭, 돼지, 소보다도 훨씬 우월해진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핵심적 논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태아의 잠재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태아의 잠재성에 근거하면 다른 논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 다른 논변을 살펴보자. 이 다른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첫 번째 전제: 잠재적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다.

결 론: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 논변의 두 번째 전제는 앞서 나온 논변의 두 번째 전제보다 더 강력하다.

태아가 실제로 인간인가 여부는 문젯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로써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달렸다)

태아가 잠재적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83) 같은 책, 187쪽

말로써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을 의미하든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논변의 강력한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전제를 약화시킨다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 인간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다는 주장은, 그때 죽는 것이 잠재적 인격체일 경우라도, 실제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다는 주장보다도 공격받을 여지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호모 사피엔스의 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합리성, 자의식 등이 소나 돼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태아가 더 강한 생명체의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⁸⁴⁾

태아의 생명⁸⁵⁾이 비슷한 수준의 합리성, 자의식, 의식, 감각능력 등을 가지는 동물의 생명보다 더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태아는 인격체가 아닌 까닭에 인격체가 가지는 것과 같은 생명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⁸⁶⁾ 이러한 이야기는 무작위로 아이를 죽이는 사람⁸⁷⁾이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허용가능한 유아살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확실하게 부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는 까닭은 유아를 살해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살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아를 살해하는 것은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상실감을 가져온다. 여기서 임신중절과 유아살해를 비교하는 것은 임신중절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유아살해를 또한 정당화한다는 반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론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임

84) 같은 책, 188쪽

85) 분명히 말하자면 수정란을 일컬음

86)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앞의 책, 205쪽

87) 초기나 중기의 기독교 학자보다도 월등히 인정 많은 도덕감으로 감동을 주는 세네카와 같은 로마 인들도, 유아살해를 병들고 불구인 아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자연스럽고 자비로운 해결책이라 생각하였다.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앞의 책, 209쪽)

신후기의 태아를 죽이는 것의 본질적 그릇됨과 신생아를 죽이는 것의 본질적 그릇됨이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임신중절의 경우에 우리는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 즉 부모가 될 사람, 혹은 엄마가 될 사람이 임신중절을 원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유아살해도 어린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어린이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임신중절과 동등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⁸⁾

낙태와 관련하여 피터 싱어의 결론적인 입장은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론은 마찬가지로 유아살해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미래가 불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 관련 부모는 그 아이를 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가 가지는 생명에의 권리와 동일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논증이다.

3. 임신중절에 대한 톰슨의 관점과 피터 싱어와의 상호 보완 가능성

1) 임신중절에 대한 톰슨의 관점: 임산부의 자율권 태아의 생명권

태아는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낙태는 수태 시점부터 허용될 수 없

88) 같은 책, 210쪽

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즉 임신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선다면, 태아가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 인간이라 하더라도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⁸⁹⁾ 다음의 두 명제가 참임을 입증해야 한다.⁹⁰⁾

a.태아는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다.

b.태아의 생명권이 임신부의 자율권에 앞선다.

절충주의적 입장⁹¹⁾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 입장은 위 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태아는 출생시점 이전에는 생명권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가 출생시점에서야 비로소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출산 이전이라면 어떤 시점이건 낙태가 문제시될 수 없다. 또한 비록 태아가 출생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명제가 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낙태는 어느 시점에서든 허용될 수 있다는 그들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⁹²⁾

툼슨(Judith Thomson)은 1971년 『철학과 공무(公務) Philosophy & Public Affairs』 창간호에 선택중시론(pro-choice)의 입장을 취하여 “낙태 옹호 A Defense of Abor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 후 그녀의 논문은 이후 낙태 논의의 이정표로서 남게 된다.⁹³⁾ 그녀는 임신부의 자율권

89) 즉, 낙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생명 의료윤리 입문서』 (성남 : 로렐나무 1999) 219쪽

91) 극단적인 두 입장인 보수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을 절충하여 수태와 출산 사이의 어떤 시점부터 태아는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92) 임종식, 같은 책, 220쪽

93) 톼슨 논문의 영향으로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모두

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당방위 모델을 취하여, 태아를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임신부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존권보다 앞서므로 낙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톰슨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주장은 그 특정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건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선택 중시론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점부터 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녀는 단세포 접합체를 인간으로 볼 수 없으며 적어도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태아의 경우 생명권을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렇듯 그녀 역시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나, 기존의 선택 중시론자들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을 비교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먼저 그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보수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에 대한 톰슨의 반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⁹⁴⁾

논증1.

1. 모든 인간은 생명권을 지닌다.
2. 태아는 수태 시점으로부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3. 태아는 수태 시점부터 생명권을 지닌다.(1과 2로부터).
- 4 임신부는 자율권을 지닌다.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 모델 및 임신에 대한 책임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북(Sissela Bok)은 낙태 문제에 임신부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잉글리쉬(Jane English)는 정당방위 모델을 취하여 비록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임신부에게 해가 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태아가 생명권을 지니지 않더라도 적어도 말기 상태의 태아를 대상으로 한 낙태는 인간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J. J. Thomson, "임신중절을 옹호함", J. 레이첼스 편, 황경식 외 옮김, 『사회윤리의 제문제』 (과주: 서광사, 2007), 121쪽.

94) 임종식, 앞의 책, 221쪽

5.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태아의 생명권이 앞선다.

6. 그러므로, 낙태는 수태 시점부터 허용될 수 없다 (5로부터).

기존의 낙태 찬성론자들은 2가 거짓임에 초점을 맞추어 위의 논증이 올바른 논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톰슨은 2가 참이라고 인정하여도 5를 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인 6이 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살 권리는 생존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필요로 할 경우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경우에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견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권유 한다.⁹⁵⁾

이 경우 당신(P라 칭하기로 하자)이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인가? 톰슨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나, 현재 상황이 9년간 지속되더라도 혹은 P의 남은 생애를 풀러 그를 쫓은 채 침대에서 보내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가 **논증1**과 연관되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톰슨에

95) “아침에 눈을 뜨자 당신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한 침대에서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치명적인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음악사랑 동호회 회원들이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의료 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직 당신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젯밤 그들은 당신을 납치하여 당신의 신장이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혈액으로부터도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바이올리니스트의 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를 당신의 혈관에 꽂았다. 병원 관계자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일을 저질러 플러그가 당신의 혈관에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9개월만 참으면 되니 그리 심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며 당신으로부터 플러그를 제거할 것입니다.” J. J. Thomson, 앞의 논문, 121쪽

따르면 모든 인간이 생명권을 지니고 있다면,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인간이므로 생명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권은 P의 자율권과 충돌하고 있으므로, **논증1**의 5가 참이라면 P는 비록 남은 생애를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침대에서 보내야 할지언정 P의 몸에서 플러그를 제거하면 안 된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⁹⁶⁾ 그렇다면 P가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이 곧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톰슨에 의하면 생명권은 생존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필요로 하든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녀에 의하면 5가 참이 아니며 따라서 **논증1**은 올바른 논증이 아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예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생명권은 어떤 상황에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와 낙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면, 톰슨의 주장대로 낙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⁹⁷⁾ 즉,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임신부가 자신의 신체로부터 태아를 분리시키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이 태아가 임신부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P와 바이올리니스트의 관계가 태아와 임신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

톰슨 자신도 인식하고 있듯이 이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낙태의 경우는 임신부가 성행위 당시 임신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에서 P는 납치된 상태에서 당한 일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와 낙태의 경우에 유사성이 있다면 단지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에 제한된 것임을 말해준다.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슨은 강

96) 임종식, 앞의 책, 223쪽

97) 같은 책, 224쪽

간에 의해서가 아닌 정상적인 성 관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고 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자.⁹⁹⁾

논증2

1. 태아를 부당하게 죽일 경우에 한해서만 태아를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2. 타인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당사자로부터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3. 많은 경우에 있어 임신부는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태아에게는 임신부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2 로부터)
4. 논증1 의 5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참이 아니다. (3 으로부터).
5. 태아를 부당하게 죽이는 경우는 단지 임신부가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상태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이다.
6.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낙태 시술이 곧 태아를 부당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하

98) 낙태 반대론자들 사이에도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에 의존하면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반면) 논증1에 의존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또한 톰슨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논증1의 5가 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한 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한다. 즉, 그들에 의하면 낙태는 인간을(태아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경우인 반면, 임신부의 죽음을 예견한 채로 낙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임신부를 죽게 방치하는 경우이다. 죽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죽게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앞서므로, 낙태를 통해서만 임신부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톰슨은 위의 주장이 제 삼자, 즉 낙태 시술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임신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Q가 비좁은 집에서 한 치의 여유도 없이 벽에 낀 채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갇혀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 분 동안 어린이가 더 자라도록 방치한다면 Q는 벽과 어린이 사이에 끼어 죽을 것이고 어린이는 결국 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밖으로 무사히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제 삼자가 Q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Q가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비자의적으로 위협할 경우 제 삼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쪽을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므로, 위의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단지 제 삼자가 낙태를 시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J. J. Thomson, 앞의 논문, 125쪽; 임종식, 앞의 책, 225쪽.

99) 임종식, 앞의 책, 225쪽

지는 않는다. (3, 5 로부터)

7. 제 삼자가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도와 낙태 시술을 해도 태아를 부당하게 취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제 삼자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8.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낙태는 (제 삼자에 의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즉 **논증1**의 6이 참이 아니다) (1, 6, 7 로부터)

위의 논증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핵심 전제인 1과 6이 참이 되어야 한다.

1이 참임은 비교적 명백하므로 문제의 핵심은 6이 참인가 하는 데 있다. 어떤 경우가 태아를 부당하게 죽이는 경우인가? 톰슨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5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신부가 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톰슨은 3을 그 답변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임신부가 태아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태아는 임신부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아야만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3을 핵심 전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은 결국 전제2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톰슨은 2에 대한 옹호로부터 그녀의 논의를 시작한다. 2가 참이며 따라서 3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4역시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논증1**의 5가 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톰슨은 그녀의 일차 목표인 **논증1**에 대한 반론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경우에 있어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먼저 2에 대한 그녀의 옹호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¹⁰⁰⁾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당사자로부터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 같은 책, 226쪽

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하여 톰슨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헨리 폰다(Henry Fonda)의 차가운 손을 내 끓는 이마에 얹어놓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헨리 폰다의 손을 내 이마에 얹을 권리를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듯 비록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타인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명권을 지녔다는 것이 타인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거나 타인의 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톰슨은 지적한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아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P가 자신의 몸으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를 분리시켜도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헨리 폰다가 내 이마에 손을 얹지 않아도 그 나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할 수 없다.¹⁰¹⁾

그렇다면 임신부가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태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톰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헨리 폰다의 경우를 수정하여, 헨리 폰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옆방에 있으므로 단지 몇 발자국만 걸으면 죽어가는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를 살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가 죽어가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냉혹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헨리 폰다는 죽어가는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어야만 하지만,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헨리 폰다의 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톰슨은 “그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he

101) 같은 책, 227쪽

has a right”는 개념을 “너는 해야 한다 you ought”는 개념과 별개로 취급할 것을 권유한다.¹⁰²⁾

톰슨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선택한 사마리아인(the Good Samaritan)의 이야기를 빌려 계속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다. 그러나 의무 이상 얼마만큼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견지에서 볼 때 헨리 폰다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8명이 지켜보거나 비명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죽어간 제노비스(Kitty Genovese)의 경우, 선택한 사마리아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나가 그녀를 구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일 것이다. 빛나는 사마리아인(a splendid Samaritan)은 한층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견지에서 볼 때 훌륭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선택한 사마리아인이 될 의무까지도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사마리아인(a minimally decent Samaritan)이 될 의무만을 지닌다.

그러나 임신부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태아를 분만일까지 자신의 몸에서 키운다면 임신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사마리아인이 될 의무 이상의 의무, 즉 초과 의무(supererogation)를 이행한 셈이다.¹⁰³⁾ 따라서 많은 경우

102) 같은 책, 230쪽

103) ‘선택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나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긴급 구조하는 것은 ‘의무’의 영역이며, 우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선량함에 해당된다. 그런데 긴급 구조라는 의무를 넘어서서 강도 만난 사람의 병원비용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초과 의무’의 영역이며,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초과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임신부가 심각하게 출산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때조차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초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임신부의 일상적인 편의를 위해 손쉽게 중절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에 있어서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톰슨은 말한다. 이렇듯 톰슨에 의하면 3과 5가 참이며 따라서 6도 참이다.¹⁰⁴⁾

지금까지의 톰슨의 주장에 따르면 임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경우 낙태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낙태를 시술하는 당사자는 제 삼자인 의사이다. 따라서 그녀는 7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만약 임신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할 경우 제 삼자는 그녀를 도와 낙태를 시술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에서 P가 납치된 상태로 9년을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지내왔다. P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플러그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경우,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바이올리니스트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듯 톰슨에 의하면 만약 제 삼자가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도와 낙태를 시술 하여도 태아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즉 그 경우의 낙태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 삼자가 낙태를 시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리) 톰슨의 주장은 다른 자유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태아는 수태시점부터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산모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앞선다면 산모의 낙태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들고 있는데, 만약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내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태아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선량함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톰슨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되, 그것이 여성의 자율권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당방위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율권에 무게중심을 두는 원칙을 중시하되, 융통성을 지닌 입장을 견지한다.

104) 같은 책, 231쪽

낙태의 경우로 말하자면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에게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톰슨이 말하는 권리와 의무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취급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권을 가졌다는 것이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태아에게 내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면 낙태는 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임신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 외의 많은 부분에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2) 톰슨과 피터 싱어의 관점 비교 및 상호 보완성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을 접근하였고 톰슨은 생명의 권리 차원에서 임신중절을 접근하였다. 피터 싱어와 톰슨의 관점 비교에 앞서 간략하게 공리주의와 권리의 개념을 살펴보자.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술어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이나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밀은 그와 같은 동기 부여를 행복이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

간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의 기초로 보았다.¹⁰⁵⁾

한편 권리는 개인 및 단체(團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말한다. 작용에 따른 권리에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¹⁰⁶⁾ 권리의 경합은 경합하는 권리 간에 우열이 없이 대등한 데 반해, 법조경합의 경우에는 법조 상호 간에 우열이 있어, 먼저 적용해야 하는 법조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수능력이 생기기 전(28일 이전)에는 자유롭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으며, 태아가 쾌고의 감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관련되는 사람들의 행복의 총량을 높인다면 그러한 경우의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피터 싱어의 논변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확보되지 않는 데 비해, 톰슨의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을 전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톰슨은 ‘정당방위 모델’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전제하고 인정한다하더라도 여성의 자율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앞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임신중절에 대한 두 학자의 접근법이 다르긴 하지만 톰슨이 접근한 권리라는 것도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관점으로 볼 경우, 양자 모두 임신중절 문제를 산모와 태아 간의 이해관계로 해명하는 점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

105) 도덕적 기초로서 유용성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이론은 행위들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이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으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고 주장한다. 행복이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그리고 쾌락의 결여를 의미 한다. 애링턴, 김성호 옮김, 『서양윤리학사』 (서울: 서광사 2005), 514쪽

106) 지배권 : 타인의 행위의 개입 없이 목적물에 대해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물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로 ‘가능권’ 이라고도 한다.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이는 청구권의 행사가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에 따라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뉜다. 시사상식사전(<http://enc.daum.net>)

다. 물론 피터 싱어가 이해관계의 해결방법을 최대다수의 행복이라는 거시 관점에서 도출한 데 비해, 톰슨은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이익이 더 앞서는가를 고려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터 싱어는 공리에 기반한 현실적 고려를 하고 있으며, 톰슨은 권리라는 원칙에 근거한 도덕적 추론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원칙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현실성과 함께 원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태아의 생명에 대한 숙고의 의무와 임신중절 최소화 방안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배려윤리(care ethics, 돌봄의 윤리)는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숙고의 의무를 고찰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Homgren & Uddenberg(1994)는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주로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와 임부와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들의 연구의 참여한 여성들이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태어날 아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관련될만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더 중시한다고 보고하면서 기존의 이론적 논의모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Gilligan(1982)¹⁰⁷⁾은 여성들이 임신중절에 대하여 옹호주의자(pro-life)의 입장이거나 선택 옹호주의자(pro-choice)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 즉 임신부의 삶과 태아의 삶간에 계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토대를

107) C. Gilligan,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1997).

둔 입장을 가진다. 권리간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며, 중국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책임의 문제의 초점을 맞춘다. 도덕과 생명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기 행위의 결과가 인간관계의 그물 조직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의 신성성 보다는 사람들을 관계지어주는 “연결의 신성성”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권리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책임의 윤리를 표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존권” 논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 즉 임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리의 대한 주장은 독립된 인간간의 문제이므로 태아와 같이 임신부에게 생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중절의 문제는 양 권리간의 갈등 문제라기보다 책임간의 갈등의 문제가 된다. “임신한 여성은 인간을 재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할 특별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여성은 또 하나의 인간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의 도덕적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만이 당사자로서 자기 주변적 요인과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능력이 자녀출산 과업을 무난히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숙고의 의무가 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숙고의 의무가 임신 수행의 의무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 양육과 보호가 고려된 숙고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이 선택권을 가질 때 비로소 책임감을 갖고 그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⁸⁾

톰슨과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든 숙고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톰슨의 경우를 살펴보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임신중절에 대

108) 엄영란, “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 『여성건강 간호학회』 제2권 제2호 1994 209쪽

한 속고를 요구한다. 즉, 그녀는 임신중절을 허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항상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선한사마리아인의 초과 의무(supererogation)를 요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최소한의 선량함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초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톰슨은 이 점에 대해 거부한다. 그러나 의무 수준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선량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강간으로 임신한 14세 소녀의 임신중절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초과 의무를 요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여행을 하는 데 성가시다고 7개월 된 태아를 제거하는 임신부가 있다면, 또 그녀에게 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선량함을 위반한 것이다.¹⁰⁹⁾

한편 피터 싱어는 경험주의적 문맥에서 생물학적 인간(homo sapiens)과 인격체(person)를 구분하면서, 호모 사피엔스에게 귀속시킨 존엄성을 인간 종족주의라는 이유로 비판한다.¹¹⁰⁾ 그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쾌고의 감수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시하며, 그러한 감수능력이 있다면 일정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태아 역시 쾌고의 감수능력이 있다면 합부로 임신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피터 싱어는 ‘합리성과 자기의식’이라는 특정한 계기를 충족시키는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격체를 죽이는 것은 심각한 범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출산 이전 태아의 경우는 ‘합리성과 자기의식’을 지닐 수 없으므로 태아 이외의 사람들과 관련된 행복의 총량에 의거하여 임신중절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피터

109) J. J. Thomson, "임신중절을 옹호함", 137-138쪽.

110)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윤리학』, 116-118쪽

싱어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태아의 경우, 임신중절에 대한 숙고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의를 정리해 보자. 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이론은 인간 생명의 신성성과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보수주의적입장과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관련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극단에 치우침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단지 태아의 생명에 관해서 숙고의 의무를 가진다는 부분은 일치한다. 지금까지의 윤리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임신중절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우 의학적으로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나 돌봄의 원리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 건강한 여성이 다음에 더 나은 상황에서 임신할 수 있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② 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경우 태아의 잠재성과 여성의 신체 제공 의무에 따른 숙고의 책임: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생존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태아를 죽이는 것은 세계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치로운 것을 빼앗는 것이므로, 태아가 발육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은 임신을 하는 것과 임신 후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숙고의 책임을 가진다.

본 연구의 기본논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임신중절의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임신중절을 결정하기 전에 임신중절 과정을 담은 비디오 자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숙려’ 기간을 두는 것처럼, 임신중절을 결정하기 전에 임신중절 관련 시청각 자료를 본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임신중절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자율권 신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것이 제도화될 경우,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임신중절을 최소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피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전 피임이 실패할 경우, 사후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정란이 배아, 더 나아가 태아로 발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정란은 아직 배아로 발전한 것은 아니며, 수정 후 14일 이전일 경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개별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조치이다. 수정 후 14일을 기점으로 일란성 쌍둥이가 결정되므로 14일을 기점으로 하여 개별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수정란의 착상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근거에서 현실성 있는 임신중절 최소화의 대안이기도 하다. 물론 보수주의자나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후피임약 사용은 적극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전한 성윤리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임신중절에 소요되는 마취제(가령, 펜토탈소디움)의 소비량이 매우 급증하는 시기가 여름 바캉스 이후 1-2개월, 크리스마스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볼 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임신중절 수치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성윤리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혼모 가운데에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냉대와 편견으로 인해 출산을 보류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 출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떤 태생적인 명에가 태아에게 있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면 미혼모라할지라도 관용하며, 그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임신중절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임신중절문제에 있어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피터 싱어와 톰슨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필자의 논지를 확고하게 하여 임신중절문제의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2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두된 여러 가지 생명윤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이 성공함에 따라서 ‘체외로 나온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각국의 임신중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권리 신장과 임신중절 기술의 발달이 맞물려 임신중절 건수도 대체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명제가 반드시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임신중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여성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태아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임신중절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주된 접근법인 피터 싱어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임신중절에 대해 심층적 탐구를 도모하였다.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기초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톰슨의 관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되 여성의 자율권과의 갈등 관계를 정당방위 모델로 해명하고 있다. 이 두 철학자의 관점은 접근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둘 모두 임신부와 태아의 관계에서 임신부의 이익 내지 권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어

는 정도 유사성이 있다. 또한 양자의 관점은 현실성과 원칙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피터 싱어와 톰슨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 임신중절에 대해 숙고해야 할 의무와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임신중절에 대한 타협 없는 독단적인 태도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임신중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하며, 생명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임신중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본권외, 『특수교육학』, 서울: 과학사, 1992.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_____,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 아카넷, 2005.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1.
- 금교영, 『생명.의료 윤리학』, 부산: 세종출판사, 2000.
- 김병화,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0.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 김성한, 『생명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남명진, 『영화속 생명윤리 이야기』, 서울: 지코사이언스, 2010.
- 도성달, 『생명사상과 윤리』, 서울: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004.
- 라몬 루카스, 『생명윤리』, 서울: 카톨릭 출판사, 2007.
- 스테픈 D 스크와르즈, 『낙태의 도덕적 문제』, 서울: 키텔릭 출판사, 2006.
- 이기준, 『임상윤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애링턴, 김성호 옮김 『서양 윤리학사』, 서울: 서광사, 2005.
- 이마이 미치오, 김일방·이승연 옮김, 『삶, 그리고 생명윤리』, 파주: 서광사, 2007.
- 이을상, 『죽음과 윤리: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서울: 백산서당, 2006.
-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생명윤리 입문서』, 성남: 로템나무, 1999.
- 제이 홀맨,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1997.

피터 싱어, 황경식·김성동 옮김 『실천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_____·김성동 옮김 『실천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피터 싱어/헬가 커스, 변순용 외 옮김, 『생명윤리학 I』, 일산: 인간 사랑, 2007.

_____, 『생명윤리학 II』, 일산: 인간 사랑, 2006.

티모 에이락시넨, 『사드의 철학과 성윤리』, 서울: 인간사랑, 1997

W.S.사아키안 저, 송휘철·황경식 공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04

2. 논문

권태환, 전광희, 조성남,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수출공단지역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제1호, 1996.

강태수, “통독후 법적동화 과정과 문제-낙태의 대한 헌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통권382호, 1992.

김기홍,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 비판” 『특수교육학연구』 제34권 제4호, 2003.

김상득, “윤리; 임신중절: 태아의 도덕적 지위” 기독교 학문 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2회, 1996.

김승권, “우리나라 부인이 피임실패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논문”, 『보건사회논집』 제12권, 통권 제1호, 1992.

김형남, “미국 헌법상 낙태 및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와 판례분석”, 『미국헌법연구』 제6권, 통권 제1호, 2005.

김해중, “각국의 임신중절 실태”, 한국생명윤리학회지, 『한국생명윤리학회』 제7

- 권, 통권 제13호, 2006.
- 박숙자, “여성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17권, 2호 2001.
- 엄영란, “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 『여성건강 간호학회』 제2권, 제2호, 1994.
- 진교훈,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 『카톨릭 법학』 제1호, 2003.
- 정종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존중”, 『카톨릭 법학』 제1호, 2003.
- Mary Anne Warren, “낙태,” 피터 싱어/헬가 커스편, 변순용외 옮김, 『생명윤리학1Ⅱ』 고양: 인간사랑, 2007.
- David M. O'Brie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vol. 2, Civil Right and Civil Liberties, 7th ed, 2008.
- JOHN E. NOWAK, RONALD D. ROTUNDA,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3rd. ed. THOMSON & WEST, 2007.

Abstract

Problem of Artificial Abortion from the Viewpoint of Peter Singer's Bioethics

LEE, MI KYOUNG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Technology development is also accelerated sharply on society which change rapidly. According as technology develops, the generation of ethical problems is also accelerated. Keeping in step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olution of ethical problems is urgent. In particular, because ethical proble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re concerned with life, we have to deal with those problems more importantly.

Artificial abortion among bioethical problems should be delved into deeply with relation to human's dignity. But bioethical problems must not be dealt with abstractly, but be dealt with in terms of social reality. Peter Singer's viewpoint has strong point in that it can treat bioethical

problems including artificial abortion in the context of concrete reality.

Peter Singer leaves the right of artificial abortion in pregnant woman i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woman's autonomy, and depends his argument of artificial abortion in terms of social stability.

But Peter Singer as a utilitarian has a serious limitation, his perspective of artificial abortion need to be complemented another perspective which can balance between woman's autonomy and fetus's right of life. I think of Thomson's viewpoint of artificial abortion as a meaningful argument to complement Peter Singer's perspective. If we observe deeply one thing, we need diverse perspectives.

Upon the basis of Peter Singer's viewpoint of artificial abortion, I treat the present state of artificial abortion inside & outside of the countr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ter Singer's and Thomson's perspective,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minimizing artificial abortion.

Keyword : bioethics, artificial abortion, utilitarianism, pro-life,
pro-choice